6강 도시와 권태

1. 도시인의 권태

1.1 도시인=지적, 시골인=정서적

◇ 시골 사람들에게는 정서적 흥분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 대도시의 주변에는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 그렇지만 그들의 정서적 동요는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희석시킬 새로운 살인 사건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 인간이 수많은 자극과 충격에 모두 적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법이다.

→ 그래서 도시인은 도시에서 정서적인 경향보다는 지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 "대도시에 사는 개인들에게 전형적인 심리적 기반은 신경과민the intensification of nervous stimulation인데, 이는 외적·내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데서 기인한다. 인간은 차이를 본질로 하는 존재이다. 즉 그의 의식은 그때그때의 인상이 선행하는 인상과 구분되는 차이에 의해 촉발된다. 우리의 의식은 인상들이 고정된 경우, 혹은 그 차이가 경미하거나 대립적인 인상들이라도 규칙적이고 익숙한 흐름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보다, 급속도로 이미지들이 교체되면서 밀려오거나,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포착되는 내용의 변화가 급격하거나 밀려드는 인상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우에 더 큰 부담을 갖는다. 이런 심리적 조건들은 대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나 빠르고 다양한 경제적·직업적·사회적 삶을 경험할 때 발생한다. (…) 여기서 특히 대도시의 정신적 삶이 어떻게 해서 기분이나 정서적 관계에 더 의존하는 소도시적 삶에 비해 지적 성격을 띠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소도시의 정서적 관계들이 정신의 더 무의식적인 층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가장 잘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의 오성은 우리 정신에서도 투명한 층, 즉 가장 상층에 자리 잡고 있다. (…) 물론 수천 가지의 개별적 경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대도시인은 외부 환경의 흐름이나 그 모순들에 의해서 삶이 뿌리째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대도시인은 그런 외부 환경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적인 반응을 한다. 동일한 원인의 결과로 의식이 고양되면 지성이 정신적 우선권을 지니게 된다. 이로써 외부 현상들에 대한 반응은 가장 덜 민감하면서도 인격의 심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신적 기관에 이양된다."「대도시와 정신적 삶」

1.2 도시인과 권태

◇ 권태를 깨는 것이 도시인의 문제이다.

◇ 도시 사람들의 권태 그 바닥에는 엄청난 자극이 있다.

→ 자연스럽게 자극에 대한 거리 두기를 행한다.

→ 도시인들이 냉담한 이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고대나 중세 소도시의 삶은 개인에게 외부를 향한 이동과 관계를 제한하고, 내부에서의 자립심과 분화에 제한을 가한다. 현대인은 그런 제한 속에서는 숨도 쉴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대도시인은 소도시에 가면 적어도 비슷한 종류의 답답함restriction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환경에 속하는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해체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집단은 더욱더 친밀하게 개인의 업적들, 생활양식 및 사고들을 감시하게 되고, 어떤 양적·질적 변종도 전체의 틀을 깨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 좀 더 정신적이고 세련된 의미에서 대도시인은 소소한 일들과 편견들에 얽매이는 소도시인들에 비해 ‘자유롭다.’ 큰 집단의 정신적 생활 조건들인 상호 무관심indifference이나 속내 감추기reserve는 개인의 독립이 성공할 경우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대도시처럼 인구가 극도로 밀집한 곳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이는 신체적 거리의 가까움과 협소함에서 비로소 정신적 거리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게 느끼는 곳은 다름 아닌 대도시의 혼잡 속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자유의 이면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반드시 그의 정서적 안정으로 나타날 필요는 결코 없다는 사실은 대도시에서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대도시와 정신적 삶」

2. 인격을 형성하는 환경적 요인

3. 일면적 관계 VS 총체적 관계

◇ 도시 → 나 → 타자 = 일면적 관계

◇ 시골 → 나 → 타자 = 총체적 관계

◇ 온갖 시골의 정서가 가득한 ‘가족’

→ 가족이란 도시 속에 자리 잡은 시골이라 할 수 있다.

→ 실직한 직장인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시골적 가족행태를 보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묻혀버리는 것

→ 조용한 가족은 독점욕을 상실한 집단이다.

◇ “대도시의 양적 조건에서 자라난 이런 두 가지 형식의 개인주의individualism, 즉 개인의 독립과 인격의 특이성이라는 두 가지 개인주의가 역사적으로 차지하는 위치에서 보면, 정신의 세계사에서 대도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개인은 정치, 농업, 길드, 종교에서 억압적이고 무의미한 구속을 받아왔는데, 이런 제한들은 인간에 부자연스러운 형식과 이미 오래 전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불평등을 강요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불어넣었지만 사회나 역사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인류의 고상한 본질을 개화시킬 사회적·정신적 상황 하에서 개인의 완전한 활동의 자유가 가능하리라는 신념이 생겨났던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런 이상 이외에 19세기에는 한편에서는 괴테와 낭만주의에 의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노동 분업에 의해 또 다른 이상이 자라났다. 역사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개인들이 각기 남과 구분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상이 그것이다. 더 이상 모든 개인 안에서 존재하는 ‘보편적 인간the general human being’이 아니라 질적 유일성qualitative uniqueness과 대체불가능성irreplaceability이 개인적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 시대의 외적·내적 역사는 개인 주체가 전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방식 간의 투쟁과 분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 대도시의 고유한 조건들은 이 두 방식이 발전할 기회이자 자극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대도시는 이 두 가지 방식간의 갈등과 조화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기능을 갖는다.”「대도시와 정신적 삶」

4. 동경에 추락한 나비, 이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자극↑ → 냉담↑ → 권태↑

◇ 이상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동경을 찾는다.

◇ 내가 생각하던 마루노치 빌딩(속칭 '마루비루')은 적어도 이 '마루비루'의 네 갑절은 되는 굉장한 것이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서도 나는 똑같은 환멸을 당할는지. 어쨌든 '이 도시는 몹시 가솔린 내가 나는구나!'가 동경의 첫인상이다. 우리같이 폐가 칠칠치 못한 인간은 우선 이 도시에 살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어도 벌려도 척 가솔린 내가 침투되어 버렸으니, 무슨 음식이고 간에 얼마간의 가솔린 맛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동경 시민의 체취는 자동차와 비슷해 가리로다.「동경」(『문장』1939.5)

◇ 그러나 저러나 동경 오기는 왔는데 나는 지금 누워 있소그려. 매 오후면 똑 기동 못할 정도로 열이 나서 성가셔서 죽겠소그려. 동경이란 참 치사스런 도십디다. 예다 대면 경성이란 얼마나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한적한 농촌'인지 모르겠습디다. 어디를 가도 구미가 당기는 것이 없소그려! 꼴사납게도 표피적인 서구적 악습의 말하자면 그나마도 그저 분자식(分子式)이 겨우 여기 수입이 되어서 진짜 행세를 하는 꼴이란 참 구역질이 날 일이오. 나는 참 동경이 이따위 비속(卑俗) 그것과 같은 물건인 줄은 그래도 몰랐소. 그래도 뭣이 있겠거니 했더니 과연 속 빈 강정 그것이다.

한화휴제(閑話休題) - 나도 보아서 내달 중에 서울로 도로 갈까 하오. 여기 있댔자 몸이나 자꾸 축이 가고 겸하여 머리가 혼란하여 불시에 발광할 것 같소. 첫째 이 가솔린 냄새 미만(彌蔓) 넘쳐흐르는 것 같은 거리가 참 싫소.「김기림에게6」

◇ 분명 이상은 동경에서 새로운 것을 봤지만 이상의 머릿속에 있던 그림과는 달랐다.

◇ 이상은 시대에 정직했던 사람이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